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1-7)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깊이 누려 하나님의 말씀에 그물을 던지는 날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시대적인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어떻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지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적 전도 전략, 세계 복음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분명 거기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유는 복음을 주신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사도 바울이 복음 운동을 펼칠 때 전했던 복음과 같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전략안으로 들어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전략대로 하지 않아도 전도지만, 그 전도는 하나님의 전도가 아닌 나의 전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전도를 이해하고, 이 전도의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우리 안에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언약입니다. 생각해 보고 나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 복음화에 있고, 그 안에 모든 축복을 넣어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영적 문제가 난무하고, 정신병이 왔으나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일 이것을 아는 정신과 의사가 나온다면 지금까지 나온 것과 다른 방법으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병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안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전혀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이고, 세상에는 영적 문제가 많은데, 영적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무능함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를 봐도 명상 운동을 진행하지만 올바른 영적 훈련을 하고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이 문제가 세대를 이어 내려가고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 남은 자 운동을 언약으로 잡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후대를 두고 잡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후대를 위한 복음 운동에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이 렘넌트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건 부모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혔을 정도로 곁에 두었습니다. 창조부터 선조들의 이야기를 요셉에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고, 꿈을 언약으로 잡게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모세에게 계속 창세로부터 요셉까지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결국 모세가 40년이 지난 이후에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이 언약을 가진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출애굽을 명하셨습니다. 근본 복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확실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 덕분에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나는 계속 사무엘을 두고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언약과 기도가 바탕이 되어 사무엘이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성취되었으나, 한나의 역할 또한 대단했습니다. 사무엘의 말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처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수많은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이 눈여겨 보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로 성취되도록 인도받아야 합니다. 방학 중 많은 훈련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렘넌트 운동에 적극적으로 따라오는 부모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이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1. 일어나 빛을 발하라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네 빛'이라고 하셨고, 이미 임하여있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면 세상에 그 빛이 전달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2절에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하나님의 빛을 가진 남은 자들입니다. 비슷한 고백을 고전 4:1에 바울이 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빛입니다. 절대적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빛이 밝아지지 않을 일은 없습니다. 이 빛은 복음이고, 그리스도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어두움에 잡혀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치유가 무조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절대적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발해야 합니다. 어떻게 빛을 발해야 할까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빛을 발한 증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각자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겨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빛으로 시대를 살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복음이 빛이고, 그 꿈이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모세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빛을 발했습니다. 그 빛은 애굽과 광야에서부터 전 세계에 퍼졌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 운동을 위해서 성경에 우리가 참고하고, 따라가야 할 많은 예들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근접한 예는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이 빛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인데, 생활방식이나 문화가 가장 비슷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의 전도가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참고하는 것이 이 빛을 발하는 데에 가장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 빛을 발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4절에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5절에 '그 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6절에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7절에 보면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욧의 숫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역사하는 일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만일 세계 복음화의 가슴을 두고 그 흐름을 따라가면 내가 이렇게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을 발하면 그 왕들이 와서 너를 섬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4절에는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너를 괴롭히던 자들이 너에게 나아올 때 허리를 굽힐 것이다.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내가 그리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가 근본 말씀은 아니지만 중요한 진실이요, 요소입니다. 근본 언약은 그리스도이고, 약속의 피를 언약으로 잡고 뱀의 머리를 깨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키우셔서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집에서 이사야서 60장을 모두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중요한 모델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복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기 위해 전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 세계 복음화가 내 마음에 들어와 현장에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 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도의 마음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됐고, 인도 받아온 여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1-15,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사렛 예수가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복음을 이렇게 알게 되고, 깊이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1:26에 복음 받은 뒤 10년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역하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10년 동안 기도하며, 정리된 복음의 내용을 전달했을 것이고, 거기에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교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중에 사도행전 13:1-3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수하여 보내서 1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 하지만 문이 계속 막히게 됩니다. 전처럼 되어지지 않으니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받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6-10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게도냐에서 수많은 제자를 세우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포인트는 제자를 세워 다른 지역으로 옮겼는데, 제자 세운 곳에서 전도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며, 기적을 보았으나 2차 전도 여행은 제자를 세워 전도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는 움직이지 않고, 두란노 서원, 한 곳에서 계속 메시지를 하며, 제자들이 현장과 훈련장을 오고 가며, 전도 운동을 지속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기적이 그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손수건과 앞치마로 병든 자를 덮으면 치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한 지역을 복음으로 진짜 정복하고, 살리는 증거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결국 로마로 연결되어 세계 복음화의 시스템을 완성한 이후에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한 사도 바울의 전도 운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일어난 전도 운동도 같은 패턴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과정의 그림을 두고 나는 어디쯤 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받아야 하는 시간표인가, 교회 살리는 사역자의 시간표인가. 혹은 교회 사역에 답을 내고, 다른 현장에 파송 받을 시간표인가. 또 혹은 현장을 돌아다닐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제자 세울 시간표인가. 한 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제자를 세워 파송시키는 시간표인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동안 세운 제자들을 부르고, 메시지 하는 사령관적인 시간표인가. 이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나는 어디쯤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놓치지 말고, 언약으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을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축복하십니다.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빛을 발하는 전도 운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빛의 운동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대한 내용, 특히 사도 바울의 전도 운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그림대로 하십니다. 계획 없이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마음에 정하신 것은 영원한 계획이 됩니다. 창세 전에 계획했다가 나타난 언약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세밀한 기록 없이 뛰어 넘겨진 인물들도 있으나, 전체적인 흐름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정확한 복음입니다. 예를 들었던 렘넌트들도 그 시대의 전도자들입니다. 근본 출발은 모두 복음을 정확하게 심은 것이었습니다. 그다음 특징은 제자 중심 전도입니다. 혼자 뛰면 몇 명 못 만나지만, 제자를 세우니 한 자리에 머물러도 다른 지역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남미에 펼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습을 갖춰가고 계십니다. 가든 안 가든 꼭 있어야 할 것은 제자들을 이끌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과 같아야 합니다. 나를 많이 바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저도 그랬으나 스스로를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소원이 내 기도가 아닌, 내 기도가 나의 기도라는 건 나를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바꾸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나의 참 기도가 아니면 일단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쳐야 할 자세이며, 이것이 세계 복음화 사상입니다. 우선 그 속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과 같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 시간표에는 기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시간표를 주십니다. 기도가 출발입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갈급하게 되어, 하나님께 계속 달라는 기도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빨리 주시지 않은 이유는 '너를 바꿔라'는 시간표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문화를 만들어 사람을 이끌고, 시대를 이끄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바울은 헬레니즘 문화를 깼습니다. 또한 유대인 문화도 깨뜨렸습니다. 기독교 문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낸 사람은 또 없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전도 운동 특징은 '기도 중심'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전도를 하는 거지, 나의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본다면 나의 기도를 바탕으로 나의 전도를 나의 동기를 넣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태는 전도가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 흐름의 이면에 있었던 중요한 하나의 특징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과 전도의 여정에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이번 6차 집중 훈련 때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처음 복음 받을 때에도 주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이후에는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 말씀 운동이 지속됐습니다. 아나니아의 말씀을 통해 바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아나니아가 가서 전하기 전에는 바울은 하나님의 이방인과 관련된 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접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을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고, 아나니아가 그것을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말씀만 성취되면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씀이 임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내 문제를 두고 말씀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와 기도하기만 하면 내 안에 수많은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만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제자 아나니아가 한 일은 받은 말씀을 전달한 것뿐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주일이 되길 축복합니다.